

한국인의 전형적인 꿈 경험*

윤 황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꿈 내용의 주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DQ(Typical Dream Questionnaire)를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외국자료와 비교하는 한편, 꿈 내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성별·국가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떨어지거나, 쫓기는 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성 행위, 하늘을 나는 꿈을, 여성은 이가 빠지거나, 공부하는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주별로는 긍정적 주제 범주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자기변형 주제 범주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통제상실이나 억압, 재앙과 관련된 주제 범주를, 남성은 마법-신화와 관련된 주제 범주의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범문화적 유사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인들만의 특이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주요어 : TDQ, 꿈, 전형적 꿈, 꿈 내용, 꿈 주제

* 이 논문은 2009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43-1

Fax : 032-345-5189, Email : yhlee@catholic.ac.kr

과학적으로 꿈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부터였다. Freud는 꿈이 유아기 성적 욕구에 근거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의식적 소망, 즉, 잠재몽(latent dream)이 검열과 왜곡 과정을 거쳐 현재몽(manifest dream)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Freud에게 있어서 꿈이란, ‘위장된 소망 충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해석을 통해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Freud, 1900). Jung은 무의식을 통해 꿈을 설명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Freud와 동일하나, 꿈을 단순한 소망충족의 기능이나 잠재몽의 왜곡된 표현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의식을 형성하는 원형들이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능동적인 현상이라 보았으며, 검열과 왜곡을 통한 발현이 기보다는, 각 원형들이 그 의미를 숨기지 않고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이부영, 1998; Vedfelt, 1999). 한편,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Perls는 무의식의 개념을 거부하고 지금-여기를 중시하여 꿈을 실존적인 메시지로 보았다. 즉, Freud와 Jung이 꿈을 무의식의 산물로 여긴 반면, Perls는 통합(integration)으로 가는 첩경으로 본 바, 꿈의 각기 다른 부분들은 모두 인격의 단편들로서 이를 모아 하나의 전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Fagan & Shepherd, 1970). 이후, 뇌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경생리학적 설명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Hobson(1997)을 비롯한 신경생리학자들은 정신분석이 제안하는 꿈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는 한편, 꿈을 수면 중 섬망 상태와 유사한 뇌의 활성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꿈의 해석이 불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에 대한 해석적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꿈을 치료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임상가들의 소망은 꿈의 의미와 내용, 기능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활발히 지속시키고 있다.

꿈과 관련한 상술된 연구 동향 중 그 내용 및 주제와 관련하여, 전형적 꿈에 대한 연구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Freud(1900)는 전형적 꿈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전형적 꿈이란, 많은 이들이 반복적·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주제의 꿈을 일컫는다. Freud는 전형적 꿈의 예로, ‘벌겨 벗겨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날거나 떨어지는’, ‘시험을 치르는’, ‘열차를 놓치는’, ‘이가 빠지는’ 등의 꿈 주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꿈들은 유아기의 경험이나 소망을 반영하며,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의 꿈을 전형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은 유사한 정서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Griffith, Miyagi와 Tago(1958)는 34항목의 전형적 꿈 주제 목록을 작성하여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항목의 꿈 경험 여부를 조사하는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꿈 경험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범문화적 특성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공격 당하거나 쫓기는(83.5%)’, ‘떨어지는(78.9%)’, ‘무언가를 계속 해서 시도하는(78.6%)’, ‘학교, 교사, 공부하는(78.2%)’ 등 4개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였다. 이후, Zadra와 Nielsen(1999)은 Griffith 등(1958)의 전형적 꿈 목록을 수정·확장하여 55문항의 Typical Dreams Questionnaire(TDQ)을 개발하였으며, Nielsen, Zadra, Simard, Saucier, Stenstrom, Smith와 Kuiken(2003)은 캐나다 3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DQ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 차이가 확인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

의 전형적 꿈 경험으로부터 명백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Griffith 등(1958)의 연구와 매우 흡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TDQ를 이용한 연구는 Schredl, Ciric, Götz와 Wittmann(2004)을 통해 독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독일 대학생들도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꿈 경험을 보고하였다. Griffith 등(1958)의 연구 이래, TDQ를 활용한 이상의 서양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Griffith 등(1958)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꿈 경험률을 보고한 상기 4개 항목이 Nielsen 등(2003)과 Schredl 등(2004)의 연구에서도 모두 상위 5번째 순위 내에 속해 있는 등 시간적·지역적·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히 경험하는 꿈이 따로 있으며, 안정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꾸준한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데, 대체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 경험과 관련된’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여성들은 ‘시험에 떨어지는’,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Oliver & Hyde, 1993),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감적이고, 대인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Feingold, 1994)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꿈 내용에서의 차이가 생시 행동에서의 성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Schredl, Sahin, & Schäfer, 1998). 이밖에, 이상과 같은 꿈 경험 및 성차의 안정성이 40여년의 시간에 걸쳐, 각기 다른 지역·국가를 통해 관찰되고 있음은 TDQ가 전형적 꿈 주제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이영호, 2011).

이상의 결과들에 대해 Yu(2008)는 TDQ를

활용한 전형적 꿈 경험 연구가 서양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DQ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이 내놓고 있는 전형적 꿈 경험 순위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보고된 바, 전형적 꿈 경험의 범문화적 보편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5개의 전형적 꿈 주제 중 대부분의 주제에서 중국 대학생들이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고 있는 점, ‘초능력을 가지는’ 꿈의 경우, 이례적으로 높은 경험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특이성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Yu, 2008). 전형적 꿈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의 무의식 중 무엇을 반영하는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전형적 꿈을 다루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의미를 찾는 데 골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Garfield, 2001).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꿈을 일부 학자들은 성적 소망을 반영하는 꿈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Gutheil, 1974), 다른 한편에서는 꿈꾸는 이의 높은 야망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tekel, 1906). 또한, Revonsuo(2000)는 ‘쫓기는’, ‘공격 당하는’ 꿈 등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꿈 주제를 언급하며, 꿈이 위협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훈련(simulation)으로서, 진화론적 적응기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포괄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ermail, Nielsen, Zadra와 Montplaisir(2000)은 전형적 꿈 주제 중엔 ‘성 경험’,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등 위협 상황과는 무관한,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꿈 주제들이 많으며, 명백한 선사 주제인 ‘뱀’, ‘지진’ 꿈의 경험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근거로 Revonsuo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전형적 꿈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인간이 유사한 경험을 하는 ‘인류’로서의 보편성과 사적인 경험을 하는 ‘개인’으로서의 특수성 모두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꿈이 Jung이 언급한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보편적 상징과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험을 동시에 담고 있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해석과 관련하여, 전형적 꿈을 이해하는 태도 또한 다층적인 필요가 있다. 즉, 비교문화적 시각을 전제로 한 보편성과 꿈꾸는 이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모두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형적 꿈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즉,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TDQ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꿈 주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인의 전형적 꿈 경험이 외국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범문화적 보편성을 따르는지 확인할 것이며, 한국인들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꿈 경험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밖에, 전형적 꿈에 대한 캐나다와 독일의 선행 연구가 서양 문화로서의 유사성을 확인했듯이(Schredl et al., 2004), 본 연구와 중국의 선행연구(Yu, 2008)를 서양의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동양 문화로서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전형적 꿈 주제를 성별·범주별로 확인하고, 이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전형적 꿈 경험의 보편성과 한국인들만의 특수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만 18세 이상의 일반인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TDQ)를 배포하였다. 연구자의 지인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으로 대개 가족단위의 표집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527부가 수거되었으며, 미완성되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된 27부를 제외하고 총 500부가 최종 자료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500명은 남자 187명, 여자 31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66세(18~63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215명, 미혼 285명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 5명, 고졸 이하 177명, 초대졸 이하 24명, 대졸 이하 210명, 대학원 이상 84명이었다.

측정도구

전형적 꿈 질문지

전형적 꿈 질문지(Typical Dream Questionnaire: TDQ)는 최초 Griffith 등(1958)이 작성한 34항목의 전형적 꿈 주제 목록을 Zadra와 Nielsen (1999)이 5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들 55문항은 주제별 유사성을 토대로 16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며, 피검자들은 각각의 문항이 묻고 있는 꿈 주제의 경험 여부를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Yu(2006)는 이를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Yu가 수정한 질문지를 2인의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안하여 교차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모든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남녀간의 성차는 χ^2 -검증을 통해 비교검증 하였으며,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의 비교는 효과의 크기(d)를 산출하고 이를 Z분포로 변환함으로써 경험률(prevalence)에 대한 직접비교 및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형적 꿈 경험 및 성차

피험자들은 TDQ가 질문하고 있는 55개의 문항 중 평균 20.08(표준편차 11.46)개의 꿈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데, 전형적 꿈 주제에 대한 전체 및 남녀 각각의 경험 순위와 경험률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꿈 주제는 '12. 떨어지는' 꿈으로 남녀 모두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다음으로 '1. 쫓기거나 추적 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37. 떨어지고 하는', '32. 성 경험', '3. 뭔가를 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는',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4. 공포에 얼어붙은',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31. 학교·교사·공부하는',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순위 상에 다소 간의 차이가 관찰되고 있으나, 상위 10개의 꿈 경험이 이상의 전체 10개의 꿈 경험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31. 학교·교사·공부하는',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을 제외한 상위 8개의 꿈 경험과 함께, '10. 돈을 줍는', '6. 너무 늦게 도착하는' 꿈이 전체 상위 10개의 꿈 경험에 포함되어 있다.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19.99(표준편차 12.76)개의 꿈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은 평균 20.14(표준편차 10.64)개의 꿈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바, 남녀가 경험하고 있는 전형적 꿈의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률과 관련하여, 남녀간 유의미한 성차가 관찰되고 있는 꿈 주제들이 있는데, '1.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chi^2(1, N=500)=4.66, p<.05$, '31. 학교·교사·공부하는', $\chi^2(1, N=500)=18.74, p<.001$,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chi^2(1, N=500)=27.94, p<.001$, '6. 너무 늦게 도착하는', $\chi^2(1, N=500)=4.27, p<.05$, '36.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chi^2(1, N=500)=9.36, p<.01$, '34. 불', $\chi^2(1, N=500)=5.13, p<.05$, '35. 현재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chi^2(1, N=500)=7.72, p<.01$, '30. 화장실을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chi^2(1, N=500)=9.53, p<.01$ 꿈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2. 성 경험', $\chi^2(1, N=500)=9.00, p<.01$, '16. 뛰어난 지식이나 정신능력을 가진', $\chi^2(1, N=500)=9.28, p<.01$, '20. 초능력을 가지는', $\chi^2(1, N=500)=5.81, p<.05$, '42. 누군가를 죽이는', $\chi^2(1, N=500)=13.16, p<.001$, '23. 지진', $\chi^2(1, N=500)=5.43, p<.05$, '46.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는', $\chi^2(1, N=500)=7.09, p<.01$ 꿈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형적 꿈경험의 경험률과 성차

순위	문항	내용	전체 %	남성		여성		χ^2
				순위	%	순위	%	
1	12	떨어지는	80.6	1	76.5	1	83.1	3.26
2	1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78.4	3	73.3	2	81.5	4.66*
3	37	떨어지려고 하는	74.0	4	73.3	3	74.4	0.09
4	32	성 경험	68.4	2	76.5	9	63.6	9.00**
5	3	뭔가를 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는	66.6	6	63.6	5	68.4	1.18
6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63.6	7	59.4	6	66.1	2.32
7	4	공포에 얼어붙은	63.2	9	58.3	7	66.1	3.09
8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63.0	5	67.9	10	60.1	3.10
9	31	학교, 교사, 공부하는	62.4	11	50.3	4	69.6	18.74***
10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57.2	17	42.2	8	66.1	27.29***
11	6	너무 늦게 도착하는(예, 기차를 놓친)	56.2	10	50.3	12	59.7	4.27*
12	36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54.8	13	46.0	11	60.1	9.36**
13	10	돈을 줍는	54.2	8	58.8	15	51.4	2.57
14	34	불	52.0	14	45.5	13	55.9	5.13*
15	2	신체적으로 공격당하는(맞거나, 찢리거나, 강간당하는 등)	48.4	12	48.7	16	48.2	0.01
16	35	현재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47.6	23	39.6	14	52.4	7.72**
17	29	방안에 뭔가의 존재(영혼이나 유령)를 생생하게 느끼는(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더라도)	45.2	15	43.3	18	46.3	0.43
18	38	시험에 떨어지는	44.4	22	40.6	17	46.6	1.71
19	8	어딘가에 갇힌	41.6	20	41.2	21	41.9	0.02
20	9	뱀	41.0	26	38.0	20	42.8	1.14
21	44	반은 깨어 있고 누워서 마비된	39.8	16	42.8	22	38.0	1.11
22	30	화장실을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39.2	32	30.5	19	44.4	9.53**
23	7	해엄치는	37.8	21	40.6	23	36.1	1.03
24	41	영화 속에 나오는	37.0	18	42.2	26	33.9	3.53
25	39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36.8	24	39.6	25	35.1	0.99
26	33	타고 있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36.6	27	38.0	24	35.8	0.24
27	16	뛰어난 지식이나 정신능력을 가진	33.4	19	41.7	33	28.4	9.28**
28	40	거칠고 사나운 짐승	33.4	31	33.2	27	33.5	0.01
29	15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32.6	30	33.7	28	31.9	0.16
30	14	벌거벗은	32.2	29	34.2	30	31.0	0.56
31	20	초능력을 가지는(공중을 날거나 떠다니는 것을 제외한)	32.0	25	38.5	34	28.1	5.81*
32	24	곤충이나 거미	29.4	35	26.2	29	31.3	1.47

33	50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28.8	33	27.3	31	29.7	0.34
34	21	홍수나 해일	26.8	42	23.0	32	29.1	2.21
35	19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보는	26.0	41	23.0	35	27.8	1.40
36	13	부적절하게 옷을 입은	25.8	34	26.2	37	25.6	0.03
37	42	누군가를 죽이는	25.6	28	34.8	42	20.1	13.16***
38	53	집에 새로운 방을 발견하는	25.4	37	24.1	36	26.2	0.28
39	43	미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22.4	36	25.1	40	20.8	1.28
40	45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얼굴을 보는	22.2	40	23.5	39	21.4	0.31
41	22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	21.6	38	23.5	41	20.4	0.66
42	28	자신이 죽은 것을 보는	21.4	39	23.5	43	20.1	0.81
43	27	살해당하는	20.6	43	23.0	44	19.2	1.05
44	52	어떤 형태든 '신'을 만나는	20.6	48	18.7	38	21.7	0.65
45	47	외계인을 보는	17.4	45	21.4	45	15.0	3.31
46	54	하늘을 나는 물체(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는	17.0	46	20.3	46	15.0	2.34
47	23	지진	16.4	44	21.4	49	13.4	5.43*
48	48	다른 행성을 여행하거나 우주의 다른 곳을 방문 하는	16.4	47	19.8	48	14.4	2.50
49	17	생물체(예,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15.4	50	16.6	47	14.7	0.32
50	25	반대의 성이 되는(예, 여자가 남자가 되는)	13.8	51	16.6	50	12.1	1.94
51	46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보는	13.0	49	18.2	51	9.9	7.09**
52	49	동물이 되는	11.0	52	14.4	52	8.9	3.61
53	51	천사가 되는	9.8	53	11.2	53	8.9	0.69
54	26	사물이 되는(예, 나무, 바위)	7.8	54	9.1	54	7.0	0.69
55	55	누군가 낙태를 하는	3.2	55	4.8	55	2.2	2.51

전형적 꿈 경험의 국가별 비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각국의 상위 순위 꿈 주제들이 표 2의 상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와 함께 제시된 중국(Yu, 2008), 캐나다(Nielsen et al., 2003), 독일(Schredl et al., 2004) 연구는 대체로 유사한 전형적 꿈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2. 떨어지는', '1.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32. 성 경험', '31. 학교, 교사, 공부하는',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형적 꿈 경험의 상위 순위 에 위치해 있다. 반면, '49. 동물이 되는', '26. 사물이 되는', '55. 누군가 낙태를 하는' 꿈은 표 2에 제시된 국가들 모두가 가장 적게 경험 하는 전형적 꿈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전형적 꿈 경험을 비교 해 보면, 한국인들은 중국, 캐나다, 독일인들 에 비해, '37. 떨어지려고 하는',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34. 불', '9. 뱀',

표 2. 전형적 꿈경험의 국가간 비교

문항	내용	한국		중국		캐나다			독일			
		순위	%	순위	%	h	순위	%	h	순위	%	h
12	떨어지는	1	80.6	3	87.1	.18*	3	73.9	.16**	4	74.3	.15*
1	좃기거나 추적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2	78.4	2	92.2	.40**	1	81.5	.08	2	88.7	.28**
37	떨어지려고 하는	3	74.0	12	66.7	.16*	6	57.7	.35**	9	56.5	.37**
32	성 경험	4	68.4	10	70.1	.04	2	76.5	.18**	3	86.7	.45**
3	뭔가를 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는	5	66.6	7	74.1	.17*	7	53.5	.27**	23	30.4	.74**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6	63.6	11	69.5	.13	23	30.7	.67**	14	42.1	.43**
4	공포에 얼어붙은	7	63.2	9	71.3	.17*	13	40.7	.45**	10	56.3	.14*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8	63.0	8	73.9	.24**	9	48.3	.30**	7	63.5	.01
31	학교, 교사, 공부하는	9	62.4	1	94.5	.85**	4	67.1	.10	1	89.2	.65**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10	57.2	25	49.4	.16*	38	18.8	.82**	19	35.6	.44**
6	너무 늦게 도착하는(예, 기차를 놓친)	11	56.2	4	80.5	.53**	5	59.5	.07	5	68.5	.26**
36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12	54.8	6	75.0	.43**	8	54.1	.01	6	68.0	.27**
10	돈을 줌	13	54.2	26	49.1	.10*	25	25.7	.59**	34	19.8	.73**
34	불	14	52.0	28	47.7	.09*	26	27.3	.51**	28	26.6	.53**
2	신체적으로 공격당하는(맞거나, 찔리거나, 강간당하는 등)	15	48.4	14	65.2	.34**	12	42.4	.12*	12	44.8	.07
35	현재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16	47.6	16	62.1	.29**	14	38.4	.19**	11	45.0	.05
29	방안에 뭔가의 존재(영혼이나 유령)를 생생하게 느끼는(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더라도)	17	45.2	21	51.4	.12	10	48.3	.06	33	23.6	.46**
38	시험에 떨어지는	18	44.4	5	79.3	.74**	11	45.0	.01	8	60.8	.33**
8	어딘가에 갇힌	19	41.6	35	39.7	.04	32	24.0	.38**	16	38.7	.06
9	뱀	20	41.0	43	29.3	.25**	34	22.1	.41**	31	25.0	.34**
44	반은 깨어 있고 누워서 마비된	21	39.8	42	29.6	.22**	24	27.2	.27**	38	18.0	.49**
30	화장실을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22	39.2	17	59.5	.41**	37	19.2	.45**	24	30.0	.19**
7	헤엄치는	23	37.8	23	50.3	.25**	18	34.3	.07	15	38.7	.02
41	영화 속에 나오는	24	37.0	20	54.9	.36**	40	16.9	.46**	49	7.7	.75**
39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25	36.8	19	56.9	.41**	29	24.2	.28**	42	16.0	.48**
33	타고 있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26	36.6	34	40.5	.08	22	32.0	.10	27	26.8	.21**
16	뛰어난 지식이나 정신능력을 가진	27	33.4	18	57.2	.48**	28	24.4	.20**	26	27.0	.14*
40	거칠고 사나운 짐승	28	33.4	32	43.4	.21**	42	15.9	.41**	29	26.4	.15*
15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29	32.6	22	51.1	.38**	35	21.4	.25**	20	34.7	.04

14	별거벗은	30	32.2	38	32.5	.01**	19	32.6	.01	13	43.0	.22**
20	초능력을 가지는(공중을 날거나 떠다니는 것을 제외한)	31	32.0	15	62.9	.63**	27	24.9	.16**	32	23.6	.19**
24	곤충이나 거미	32	29.4	27	47.7	.38**	17	33.8	.09	17	37.2	.17*
50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33	28.8	13	66.4	.77**	15	36.7	.17**	22	32.7	.08
21	홍수나 해일	34	26.8	44	29.3	.06	46	12.4	.37**	35	19.8	.17**
19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보는	35	26.0	24	49.7	.50**	43	15.9	.25**	40	16.9	.22**
13	부적절하게 옷을 입은	36	25.8	30	46.0	.43**	20	32.5	.15**	21	33.1	.16*
42	누군가를 죽이는	37	25.6	37	35.9	.22**	30	24.3	.03	36	18.7	.17*
53	집에 새로운 방을 발견하는	38	25.4	29	47.7	.47**	21	32.3	.15**	25	29.1	.08
43	미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39	22.4	41	31.9	.21**	39	20.0	.06	39	17.1	.13*
45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얼굴을 보는	40	22.2	31	45.4	.50**	33	23.5	.03	30	26.1	.09
22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	41	21.6	46	28.4	.16*	36	17.7	.10	48	7.9	.40**
28	자신이 죽은 것을 보는	42	21.4	36	38.5	.38**	31	23.8	.06	37	18.2	.08
27	살해당하는	43	20.6	33	40.5	.44**	16	34.5	.31**	18	36.3	.35**
52	어떤 형태든 '신'을 만나는	44	20.6	40	32.2	.27**	49	11.2	.26**	43	12.4	.22**
47	외계인을 보는	45	17.4	51	26.4	.22**	51	9.5	.23**	50	6.5	.35**
54	하늘을 나는 물체(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는	46	17.0	47	28.4	.27**	47	12.8	.12*	44	11.9	.15*
23	지진	47	16.4	50	26.7	.25**	50	10.8	.16**	45	11.7	.14*
48	다른 행성을 여행하거나 우주의 다른 곳을 방문 하는	48	16.4	45	28.7	.30**	45	12.3	.12*	51	6.3	.33**
17	생물체(예,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49	15.4	49	26.7	.28**	41	16.8	.04	47	11.0	.13*
25	반대의 성이 되는(예, 여자가 남자가 되는)	50	13.8	53	21.6	.21**	48	11.9	.06	41	16.0	.06
46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보는	51	13.0	48	27.9	.38**	53	7.7	.18**	53	4.5	.31**
49	동물이 되는	52	11.0	52	25.9	.39**	52	8.0	.10	52	5.0	.23**
51	천사가 되는	53	9.8	39	32.2	.57**	44	12.4	.08	46	11.3	.05
26	사물이 되는(예, 나무, 바위)	54	7.8	54	17.5	.30**	55	3.5	.19**	55	2.5	.25**
55	누군가 낙태를 하는	55	3.2	55	8.9	.25**	54	5.1	.10	54	2.9	.02

‘44. 반은 깨어있고 누워서 마비된’ 꿈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 부적절하게 옷을 입은’, ‘27. 살해당하는’, ‘52. 어떤 형태든 신을 만나는’ 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밖에, 동양 문화권에 포함되는 중국과 한국인들은 서양 문화권으로 대별되는 캐나다와 독일인들보

표 3. 전형적 꿈의 16개 주제 범주

요인(주제 범주)	전형적 꿈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죽음-살인)	'2. 신체적으로 공격당하는(맞거나, 찢리거나, 강간당하는)', '27. 살해 당하는', '28. 자신이 죽는 것을 보는', '36.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42. 누군가를 죽이는', '43. 미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718
요인2(재앙)	'21. 홍수나 해일', '22.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 '23. 지진', '34. 불', '54. 하늘을 나는 물체(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는'	.724
요인3(긍정적 주제)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7. 해엄치는', '10. 돈을 줌', '19.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보는', '35. 현재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41. 영화 속에 나오는', '50.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632
요인4(외계 생물체)	'46.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보는', '47. 외계인을 보는', '48. 다른 행성을 여행하거나 우주의 다른 곳을 방문하는'	.871
요인5(성-노출)	'13. 부적절하게 옷을 입은', '14. 벌거벗은', '30. 화장실을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32. 성 경험'	.597
요인6(마비-실재)	'3. 뭔가를 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는', '29. 방안에 뭔가의 존재(영혼이나 유령)를 생생하게 느끼는(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더라도)', '44. 반은 깨어있고 누워서 마비된', '45.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얼굴을 보는'	.533
요인7(자기변형)	'25. 반대의 성이 되는(예, 여자가 남자가 되는)', '26. 사물이 되는(예, 나무·바위)', '49. 동물이 되는'	.633
요인8(추락-비상)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12. 떨어지는', '37. 떨어지려고 하는'	.645
요인9(뱀-벌레)	'9. 뱀', '24. 곤충이나 거미'	.472
요인10(마법-신화)	'16. 뛰어난 지식이나 정신능력을 가진', '20. 초능력을 가지는(공중을 날거나 떠다니는 것을 제외한)'	.663
요인11(현현)	'51. 천사가 되는', '52. 어떤 형태는 신을 만나는'	.550
요인12(실패)	'6. 너무 늦게 도착하는(예, 기차를 놓친)', '38. 시험에 떨어지는'	.528
요인13(억압)	'8. 어딘가에 갇힌', '15.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31. 학교·교사·공부하는', '39.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532
요인14(쫓김-공포)	'1. 쫓기거나 추적 당하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는', '4. 공포에 얼어붙은'	.622
요인15(통제상실)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33. 타고 있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53. 집에 새로운 방을 발견하는'	.388
요인16(집승)	'17. 생물체(예,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40. 거칠고 사나운 짐승', '55. 누군가 낙태를 하는'	.403

다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10. 돈을 줌', '32. 성 경험' 꿈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1. 홍수나 해일'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32. 성 경험' 꿈은 유의미하게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형적 꿈 경험의 주제 범주별 비교

Nielsen 등(2003)은 55개의 전형적 꿈을 요인 분석을 통해 16개 범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전형적 꿈들끼리 각각의 범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유사한 내용의 꿈들 간에 공통적으로 기저하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데, 16개 주제 범주들과 이들 각각을 구성하는 55개의 전형적 꿈은 표 3과 같다.

상기 16개 주제 범주에 대한 꿈 경험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는 한국인들의 남녀간 성차에 따른 주제 범주별 비교 외에도, 캐나다인들(Nielsen et al., 2003)과의 국가

간 비교를 함께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긍정적 주제의 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앙’, $\chi^2(1, N=500)=4.41, p<.05$, ‘억압’, $\chi^2(1, N=500)=4.68, p<.05$, ‘통제상실’과, $\chi^2(1, N=500)=13.67, p<.001$, 관련된 주제 범주의 꿈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며, ‘마법-신화’와, $\chi^2(1, N=500)=6.89, p<.001$, 관련된 주제 범주의 꿈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추락-비상과 관련된 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비-실재’, ‘뱀-벌레’, ‘실패’, ‘통제상실’과 관련된 주제 범주의 꿈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

표 4. 각 주제 범주별 경험률 및 경험빈도에 대한 성별·국가별(캐나다) 비교

요인	한국					캐나다					h
	전체	남성	여성	χ^2	전체	남성	여성	F			
	순위	%	%		순위	%	M		M		
1. 죽음-살인	7	77.0	74.3	78.6	1.20	5	78.9	-0.03	0.01	0.45	.05
2. 재앙	10	63.6	57.8	67.1	4.41*	10	45.3	0.02	-0.01	0.23	.37**
3. 긍정적 주제	1	90.6	90.4	90.7	0.18	4	79.0	-0.01	0.00	0.09	.33**
4. 외계 생물체	15	22.8	25.7	21.1	1.40	14	19.7	0.28	-0.11	36.38***	.08
5. 성-노출	6	80.2	83.4	78.3	1.95	3	84.5	0.06	-0.03	2.19	.11*
6. 마비-실재	4	83.4	82.4	84.0	0.24	7	76.6	-0.09	0.03	3.86*	.17**
7. 자기변형	16	21.2	24.1	19.5	1.47	15	18.3	0.03	-0.01	0.46	.07
8. 추락-비상	2	89.2	86.1	91.1	2.99	1	85.2	-0.01	0.00	0.07	.12*
9. 뱀-벌레	11	51.4	46.5	54.3	2.84	11	42.7	-0.19	0.08	15.06***	.17**
10. 마법-신화	12	43.8	51.3	39.3	6.89***	12	37.0	0.46	-0.19	106.92***	.14**
11. 현현(epiphany)	14	23.6	21.9	24.6	0.47	16	18.0	0.14	-0.01	0.62	.14**
12. 실패	9	66.8	61.5	70.0	3.79	8	70.6	-0.20	0.08	20.94***	.08
13. 억압	5	82.8	78.1	85.6	4.68*	5	78.9	-0.07	0.03	2.44	.10
14. 쫓김-공포	3	84.4	80.7	86.6	3.03	2	84.8	-0.07	0.03	2.53	.01
15. 통제상실	8	73.6	64.2	79.2	13.67***	9	57.8	-0.16	0.06	10.52***	.33**
16. 짐승	13	39.8	38.5	40.6	0.21	13	30.1	0.10	-0.04	4.73*	.20**

며, '외계 생물체', '마법-신화', '짐승'과 관련된 주제 범주는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인들은 캐나다인들보다 '재앙', '긍정적 주제', '마비-실재', '추락-비상', '뱀-벌레', '마법-신화', '현현', '통제상실', '짐승' 등의 주제 범주의 꿈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하며, 캐나다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성-노출' 주제 범주의 꿈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전형적 꿈 경험 현상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전형적 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TDQ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전형적 꿈 경험을 주제별·성별·범주별로 확인하는 한편, 이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캐나다(2003)·독일(2004)·중국(2008)의 전형적 꿈 경험 순위를 표 2를 통해 비교·제시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10가지 주제의 꿈이 표 2의 상단부에 밀집돼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Griffith등(1958)의 연구 이래, 꾸준히 제기 되어 온 전형적 꿈 경험의 범문화적 보편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지역적·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꿈 주제들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고 있는 꿈 주제들 중 '12. 떨어지는', '1.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몸은 다치지 않는', '37. 떨어지려고 하는', '4. 공포에 얼어붙은' 등 소위 불안꿈과 '11. 하늘을 날거나 비상하는', '32. 성 경험', '31. 학교, 교사, 공부하는' 꿈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경험과 무의식적 소망, 현실 생활에서의 관심사를 꿈이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특정 꿈 주제에 대한 남녀간 성차가 꾸준히 보고되어져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32. 성 경험'과 관련된 꿈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공격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42. 누군가를 죽이는' 꿈, '16. 뛰어난 지식이나 정신 능력을 가진', '20. 초능력을 가지는' 꿈 등 권능과 관련된 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1.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몸은 다치지 않는', '31. 학교, 교사, 공부하는', '6. 너무 늦게 도착하는', '30. 화장실을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꿈 등 통제 상실 및 실패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36.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35. 현재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꿈 등 대상의 상실 및 관계와 관련된 꿈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격성과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 남성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하며, 성 및 권능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꿈 내용이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반면, 여성은 위협이나 통제 상실, 실패에 대한 불안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

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꿈 내용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생시 행동에서의 성차를 반영한다는 Schredl 등(199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셋째, 한국인들은 ‘37. 떨어지려고 하는’, ‘18. 자신의 이가 빠지는, 이가 없어지는’, ‘34. 불’, ‘9. 뱀’, ‘44. 반은 깨어있고 누워서 마비된’ 꿈을 캐나다·독일·중국 등 비교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가진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일부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즉, 이가 빠지는 꿈에 대해 우리 민간 전통에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죽는다는 불길한 예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승아(2009)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힘과 권력·정조·중요 대상을 상징하며, 이가 빠지는 꿈의 보편적인 의미는 분리와 관련된 불안감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우리 민족사는 유난히 많은 외부의 침략과 이에 맞서는 저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전쟁터로 떠난 남성과 공녀나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 보내고 남은 자들의 정한은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남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가 빠지는 꿈을 비교 국가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분리와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는 한국인들의 공유된 정서와 집단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와 독일의 서양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양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국과 한국인들은 캐나다와 독일인들보다 ‘5. 맛있는 음식을 먹는’, ‘10. 돈을 줍는’, ‘21. 홍수나 해일’

꿈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32. 성 경험’ 꿈은 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 경험’ 꿈의 경우, 꿈과 관련한 각각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해 볼 수 있겠다. 즉, 꿈이 곧 생시 경험을 반영한다는 꿈의 연속성 가설에 입각해 볼 때(Bulkeley, 1997; Hall & Nordby, 1972), ‘성 경험’ 꿈과 관련한 동서양 간의 차이는 성과 관련한 동서양 문화권 간의 평소 관심사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망각하고자 하는 동기화된 망각의 관점에서는(Freud, 1900, 1926), 성과 관련한 동서양 간의 서로 다른 문화적 압력이 ‘성 경험’ 꿈과 관련한 유의미한 기억 회상의 차이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밖에, 동양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돈을 줍는’, ‘홍수나 해일’ 꿈을 더 많이 경험한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되었는지 추후에 좀 더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중국 연구(Yu, 2008)에서는 TDQ가 포함하고 있는 55개 꿈 주제 중 대부분의 주제에서 중국인들이 캐나다와 독일인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험률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Yu는 두 가지 가능성 있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인들이 캐나다와 독일인들보다 꿈을 더 잘 회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며, 다른 한 가지는 캐나다와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TDQ가 예·아니오의 양분 척도였던 반면, 중국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구에서 이용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했는데,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같은 압도적인 경험률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Yu가 제안한 두

가지 대안적 설명 중 측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인들의 높은 경험률은 전형적 꿈 경험과 관련한 중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TDQ를 활용한 최초의 국내외간 비교연구로 한국인들의 전형적 꿈 경험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외국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전형적 꿈의 범문화적 보편성 및 한국인들만의 특이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승아(2009)의 연구와 같이 향후 각각의 전형적 꿈 주제들이 갖는 보편적 의미에 관한 연구들을 보다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장면에서 개별 사례 각각에 대한 개인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경우, 내담자가 보고하는 전형적 꿈을 통해, 내담자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독일·중국 등 비교국가들의 연구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연령 및 학력 등 외재변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단,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피험자 137명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전체 피험자와 χ^2 -검증을 통해 비교했을 때, ‘9. 뱀’, ‘34. 불’, ‘42. 누군가를 죽이는’, ‘50.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경험률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중 ‘9. 뱀’, ‘34. 불’ 꿈은 전체 피험자 집단이 대학생 피험자 집단보다, ‘42. 누군가를 죽이는’, ‘50. 다

시 어린 아이가 되는’ 꿈은 대학생 피험자 집단이 전체 피험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이상 4개 항목은 모두 한국인 경험률 순위표 상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전형적 꿈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교가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본 연구 및 각각의 선행연구들 간에 많게는 8년까지의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외재변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국가별·동서양 국가 간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해 많은 차이가 관찰되고 있으나, 논의를 통해서는 지극히 일부만 다뤄졌다. 이는 전형적 꿈 경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특히, 각 전형적 꿈 주제의 의미와 관련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점, 또한, 이를 다루기 위한 연구자의 비교문화적 식견이 부족한 점에 이유가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각 전형적 꿈 주제들의 의미와 관련한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전형적 꿈 경험 연구에서 TDQ가 갖는 의미는 전형적 꿈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돼지·인분·물·피 등과 관련된 꿈은 경험적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간 전통을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TDQ가 포함하고 있는 55개의 꿈 주제들과 한국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전형적 꿈 주제들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국 선행연구들과의 국가간 비교를 포함하지

않는,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 꿈 경험 연구에서는 일부 꿈 주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26. 사물이 되는’, ‘51. 천사가 되는’, ‘55. 누군가 낙태를 하는’ 꿈 등 본 연구를 통해 저조한 경험률을 보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2판. 서울, 일조각.
- 이영호 (2011). 꿈강도, 전형적 꿈 주제 및 꿈에 대한 태도와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19-439.
- 정승아 (2009). 이가 빠지는 꿈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48-2, 102-109.
- Bulkeley, K. (1997).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dreaming*. Westport: Praeger.
- Fagan, J., & Shepherd, I. (1970). *Gestalt therapy now*. New York: Harper & Row.
- Feingold, A. (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456.
-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J. Crick, Tra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9). New York: Norton & Company.
- Garfield, P. (2001). *The universal dream key: The 12 most common dream themes arou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Germaine, A., Nielsen, T., Zadra, A., & Montplaisir, J. (2000). The prevalence of typical dream themes challenges the specificity of the threat simulation theor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3, 940-941.
- Griffith, R. M., Miyagi, O., & Tago, A. (1958). Universality of typical dreams: Japanese vs. Americans. *American Anthropologist*, 60, 1173-1179.
- Gutheil, E. A. (1974). *The new world of dreams*. New York: Liveright.
- Hall, C. S., & Nordby, V. (1972). *The individual and his dream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Hobson, J. A. (1997). Dreaming as delirium: A mental status examination of our nightly madness. *Seminars in Neurology*, 17, 121-128.
- Nielsen, T. A., Zadra, A. L., Simard, V., Saucier, S., Stenstrom, P., Smith, C., & Kuiken, D. (2003). The typical dreams of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Dreaming*, 13, 211-235.
- Oliver, M. B., & Hyde, J. S.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 Revonsuo, A. (2000). The reinterpretation of dreams: An evolutionary hypothesis of the function of dream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3, 877-901.
- Schredl, M., Ciric, P., Götz, S., & Wittmann, L. (2004). Typical dreams: Stabil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138, 485-494.
- Schredle, M., Sahin, V., & Schäfer, G. (1998). Gender difference in dreams: Do they reflect gender differences in waking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433-442.
- Stekel, W. (1906). Typische Träume[Typical

- dreams]. *Der Zeitgeist: Beiblatt zum Berliner Tageblatt, Nr., 137*, 2-3.
- Vedfelt, O. (1999). *The dimensions of dreams*.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Tindall, K.: Trans.)
- Yu, C. K.-C. (2006). Facilitating dream recall in Chinese people. *Dreaming, 16*, 186-195.
- Yu, C. K.-C. (2008). Typical dreams experienced by Chinese people. *Dreaming, 18*, 1-10.
- Zadra, A. L. & Nielsen, T. A. (1999). The 55 Typical Dreams Questionnaire: Consistencies across student samples. *Sleep, 22*, S175.
- 1차원고접수 : 2011. 9. 30.
수정원고접수 : 2011. 12. 7.
최종게재결정 : 2011. 12. 14.

Typical Dreams Experienced by Koreans

Hwang You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profile of typical dream themes experienced by Koreans. The Typical Dreams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500 Korean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that dreams of flying and being chased are most popular. Males reported to have dreams of sexual experience or flying more often than any other kinds of dreams, and females reported to more often have the dreams of losing teeth or studying. In terms of factors, the dreams of positive themes are most frequently reported. Meanwhile, the greater portion of female's dreams belong to the factors of inhibition and loss of control and the greater portion of male's dreams belong to the factors of magic-myth. These results supported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typical dreams and also demonstrated some uniqueness of Koreans' typical dreams.

Key words : TDQ, dream, typical dream, dream content, dream theme.